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59)

제2부:베일벗는 일본군 실체-46 일제군사시설과 4-3 (5)섯알오름탄약고
탄약고 터가 1백95명 학살터

입력 : 2007. 03.22. 00:00:00



▲사진 위로부터 집단학살이 자행됐던
섯알오름 탄약고 터의 현재 모습. 가
운데는 셋알오름의 탄약고 원래 모습.
아래 사진은 미군무장해제팀이 탄약고
터를 폭파시키기 위해 탄약을 설치하
는 모습. /사진=한라일보DB

원래 일본군탄약고...미군이 폭파시켜

정식 발굴조사 안돼...진상규명 나서야

태평양전쟁 말기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는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대다. 당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상륙 예상지점으로 꼽히면서 일본군은 이 일대에 지상과 지하 가릴 것 없이 각종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중무장 한다. 상공에서는 당시 미군의 최신폭격기인 B-29기의 간헐적 폭격도 이어지는 등 전면전 직전의 전투상황이 벌어졌다.

송악산 첫알오름(알오름)에 올라보면 60여 년 전 전쟁의 상흔은 살벌진 풍경으로 다가온다. 공군전략기지 건설문제로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알뜨르비행장의 활주로와 격납고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 국토의 끝이자 시작인 마라도와 가파도가 보이고 화순항 일대와 산방산 군산 모슬봉이 알뜨르를 감싸고 있다.

일본군에 의해 첫알오름은 그 자체가 군사요새로 개조된다. 오름 지하는 일본의 마쯔시로 대본영에 비견되는 대규모 갱도가 만들어지고 정상부에는 고사포진지가 구축된다. 첫알오름 기슭은 진입로를 만들고 그 안쪽에 탄약고가 자리했다. 첫알오름의 고사포진지와 탄약고는 일본군의 패전 뒤 1945년 9월 말 미 군단병기장교 파우웰(G.F. Powell) 대령이 이끄는 무장해제팀에 의해 폭파된다. 그때 첫알오름 기슭의 상당부분이 함몰되면서 커다란 구덩이가 만들어졌다.

그 후 첫알오름 탄약고 터는 통곡과 비극의 땅이 된다. 무려 1백95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구덩이로 변해버린 탄약고 터에서 집단학살 암매장 되는 것이다. 일제가 만든 탄약고 터가 제주 최대의 집단학살지의 하나가 된 것이다.

1948년 발생한 '제주 4·3'으로 제주도민 전체가 지옥과도 같은 세월을 감내하던 시기, 이어진 한국전쟁은 또 하나의 커다란 시련으로 다가선다.

1950년 8월20일(음력 7월7일) 새벽 4~5시 무렵 대정읍 상모리 고구마창고에 수감됐던 1백32명의 주민들이 이곳에 끌려왔다. 그리고는 경찰에 의해 집단학살 당한 채 그대로 매장된다. 이에 앞서 같은 날 한림지서에 검속됐던 63명도 학살되기 전날 저녁 대정지역으로 옮겨져 이날 새벽 2시쯤에 집단 처형된다.



▲섯알오름 탄약고에서 집단학살된 희생자를 이장해서 조성한 백조일손 공동묘지.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이들 희생자는 모두 한국전쟁 직후 예비검속이란 명목아래 붙잡힌 주민 학생 등이 대부분이었다. 전국적으로 검거선봉이 불어닥친 당시 제주지구계엄당국에서도 8백20명의 주민을 검속하기에 이른다. 모슬포경찰서 관내였던 한림 한경 대정 안덕 등지에서도 3백74명이 검속돼 이 가운데 1백95명이 알오름 탄약고 터에서 학살된 것이다.

희생자들은 그 후 몇 년 동안 방치되다가 한림지역 희생자 63명은 3년 만인 1953년 밤중에 몰래 수습돼 한림읍 만병디공동장지에 묻혔다. 나머지 희생자 1백32명의 유해는 사건 발생 6년8개월 만인 1957년 4월에야 사계리 공동묘지로 안장된다. 뒤늦게 유해는 수습됐으나 희생자의 신원은 구분이 안돼 유가족들은 묘비 하나를 세운다. '조상은 1백32명이되 후손은 하나로, 1백여 조상을 자기 조상 모시듯 섬기라'는 뜻의 '백조일손지지'(百祖一孫之地) 묘비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현재 이곳은 깊은 웅덩이로 변한 채 방치되고 있다. 학살암매장 현장에 대한 정식 조사발굴도 아직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체적 진실규명은 요원한 실정이다.

/특별취재팀= 이윤형·표성준· 이승철기자

[탐사포커스]학살터 보존정비 제대로 추진해야

섯알오름 학살터를 역사교훈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비방안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셋알오름 학살터에 대해 정식 발굴조사 및 보존방안 마련이 제기돼 왔으나 부지가 국방부 소유인데다, 제주도 등 관련 당국에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그대로 방치돼 왔다. 하지만 국방부측이 최근 부지매입을 승낙함으로써 이곳에 대한 복원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것.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셋알오름 학살터(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597-3번지 일대, 면적 1만5천3백46평방m)에 대한 복원정비에 나서 총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위령탑 1개소와 진입로, 주차장, 기념관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유적지 정비사업이 제주4·3사업소 등을 중심으로 개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대로된 역사교훈의 장으로 조성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셋알오름학살터 정비사업은 알뜨르비행장 일대의 모슬포 일제전적지 정비사업 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근 제주예비검속사건을 비롯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 1만8백60건 중 9천1백54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묻혀져 왔던 셋알오름 집단학살 암매장 사건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사건진상이 규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